

숙련공이 없다…전남광주 제조업 경쟁력 ‘빨간불’

기능인력 고령화·청년 제조업 기파…구인난 장기화
AI·미래차 생산기반 흔들…인력 양성체계 구축 시급

AI와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전남광주 제조업계가 정작 생산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인력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용접과 급형, 절삭가공, 설비 유지보수 등 핵심 공정을 맡을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생산 차질은 물론 향후 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평동산단과 하남산단,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수개월째 기능인력 채용 공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업체는 생산설비를 증설하고도 작업 인력이 부족해 장비 가동률을 조정하고 있으며, 기존 숙련공들이 여러 공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금속가공업체의 경우 한 명의 숙련공이 여러 설비를 오가며 공정 수행을 전담하는 상황이다. 이 업체는 최근 8개월째 용접 기능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산 물량은 꾸준하지만 숙련공 부족으로 납기를 조정하거나 잔업과 특근을 반복하는 일이 빈번하다.

업체 관계자는 “경력직은 좀처럼 지원하지 않고, 신입을 채용해도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동화 설비가 설치된 생산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작업자는 많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한 사람이 두세 개 공정을 동시에 맡으며 설비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주하다.

이 같은 현상은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46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9만6000명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미충원 인원이 2만7000명으로 가장 많아 숙련 기술인력 부족이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미충원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은 ‘사업체가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인원이 부족’ (25.8%) 이었다.

지역 제조업계는 숙련공 부족의 배경으로 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파 현상을 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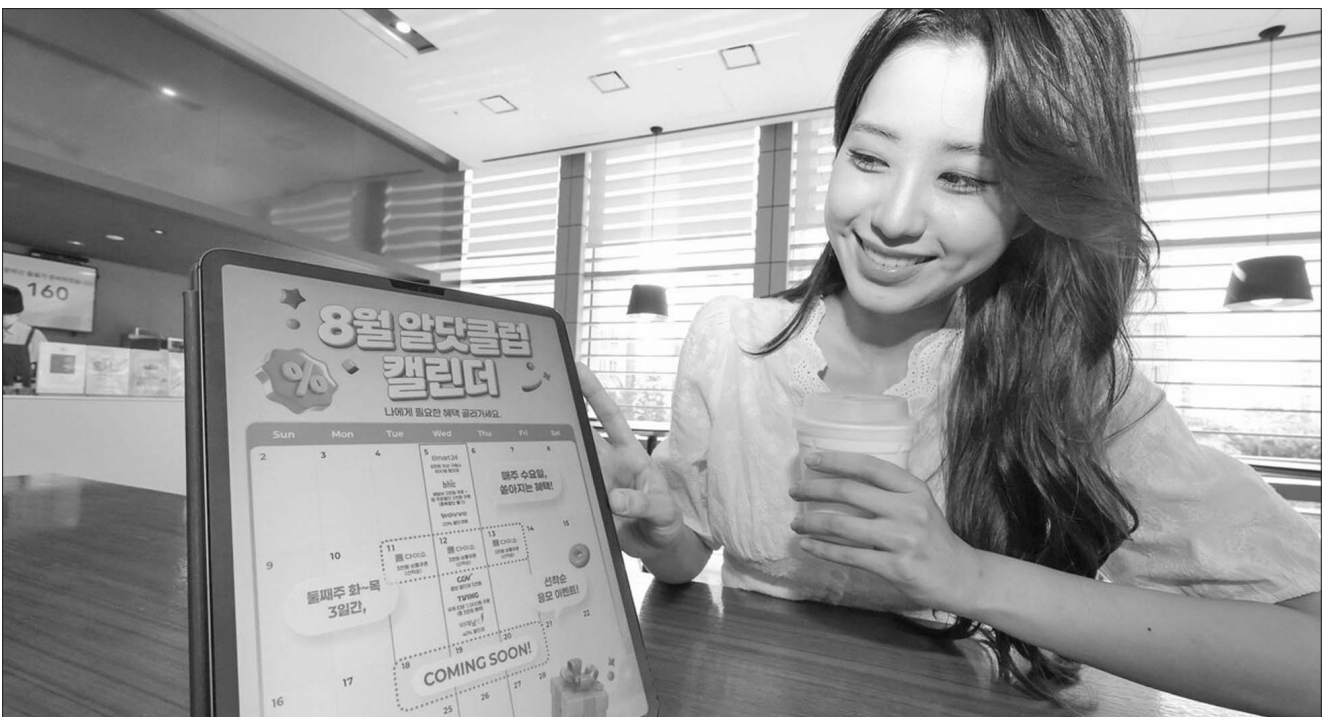
문제는 이 같은 인력난이 기업의 투자 효과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

대와 재직자 다기능 교육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속련도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 산업 전문가는 “전남광주는 AI와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으로 연결할 숙련 기술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직업계고와 대학, 기업이 연계한 현장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제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임금, 복지 개선 역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LG유플러스, 알뜰폰 전용 혜택 출시 LG유플러스가 알뜰폰 플랫폼 ‘알뜰’에서 개통한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 프로그램 ‘알뜰클럽’을 선보인다. 알뜰클럽은 신규 가입 고객 중심으로 제공되던 알뜰폰 혜택을 기존 고객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이다. 알뜰클럽은 알뜰을 통해 개통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이직 클럽’과 알뜰을 통해 개통한 고객 중 이용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을 위한 ‘스팩셀 클럽’으로 구성된다. 매주 수요일 새로운 혜택을 제공해 고객이 정기적으로 혜택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한전KPS, 자립준비청년 ‘기술인재’ 키운다

7명 선발 5주 합숙·자격 취득 연계…사회공헌 활동 확대

한전KPS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본부와 함께 ‘KPS-희망청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송전전기원 양성교육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남광주지역 자립준비청년 7명이 선발됐다. 교육생들은 앞

으로 5주간 합숙 교육을 통해 송전전기원(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력 설비 분야 전문기술을 익히게 된다.

한전KPS는 교육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는 물론 교육 준비물과 교통비, 주말 식대 등 교육 과정 전반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평가를 거쳐 송전전기원 2급 자격 취득 기회도 제공된다.

송전전기원은 송전선로 건설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전력산업 전문 기술 인력으로, 전력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요한 핵심 직무 가운데 하나다.

한전KPS는 이번 교육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전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PS는 전력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으로서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기술을 익히고 미래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국민의 공기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불경기에 ‘실속형’ 결혼문화 뜬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높아진 예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 준비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성수기를 피해 비수기에 예식을 잡거나, 스튜디오 촬영을 제외한 ‘드레스·메이크업(드메)’만 선택하는 등 실속형 소비가 새로운 결혼 문화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계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예식 시기와 서비스 구성에 따라 결혼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체결된 결혼식장과 스텝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성수기(3~6월·9~12

이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높아진 결혼 비용은 예비부부들의 소비 방식도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스튜디오 촬영을 생략하는 ‘드메’ 계약 증가다.

드메 계약 비중은 지난해 4월 11.0%(222건)에서 올해 6월 19.2%(422건)로 15개월 만에 약 1.7배 늘었다.

가격 차이도 적지 않았다. 드레스와 메이크업만 포함한 드메 계약의 중간가격은 160만원으로 스튜디오 촬영이 포함된 스텝 패키지 292만원보다 132만원(45.2%)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촬영보다 실질적인 예식 준비에 비용을 집중하려는 소비 성

성·비수기 최대 325만원 차이…예식시기 조정 ↑

‘스드메’ 대신 ‘드메’ 선택…비용절감 움직임 뚜렷

월) 평균 결혼 비용은 2156만원으로 비수기(1·2·7·8월) 평균 1954만원보다 202만원 높았다.

월별로는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4월 평균 계약금액이 223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1월은 1913만원으로 가장 낮아 최대 325만원(17.0%)의 차이를 보였다.

비용 상승은 예식장에서 두드러졌다.

성수기 결혼식장 계약금액 중간가격은 1610만원으로 비수기 1250만원보다 360만원(28.8%) 높았다.

특히 식대가 220만원(22.4%) 차이를 보여 전체 비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식대 계약 기준인 최소보증인원은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200명으로 동일했지만, 1인당 식대는 성수기 6만 원, 비수기 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성수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예식이나 가격대가 높은 예식장 계약이 집중되는 영향도 비용 차

이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예식 시기를 조정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했다.

결혼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비수기 평일 예식장 대관료가 성수기 주말 점심 시간대의 69.1%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가운데 68곳(45.3%)은 비수기 할인이나 촬영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평균 할인율은 11% 수준이었다.

반면 성수기에는 추가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다.

사업자의 32.8%는 성수기 주말 예식에서 생화 장식이나 분식 도우미 등 필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식 시기 선택에 따라 대관료뿐 아니라 부가 서비스 비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